

“전복 껍데기 보면 속이 뒤집어지네요”

집단폐사 수백억 피해
완도 전복양식장 르포

가두리 그물 끌어올리자
전복은 없고 빈 껍데기만
추석대목 앞두고 한숨
“고수온 아닌 적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달라”

“3년 전 볼라벤으로 큰 피해를 봤는데, 올해는 태풍이 오지 않아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런 일(적조피해)이 벌어지네요. 죽은 전복만 보면 속이 상해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5일 오후 3시 완도군 금일읍 도장리 일대에서 동쪽 해상으로 1km 떨어진 한병철(43)씨의 전복양식장. 7.9급 전복양식 어장 관리선이 크레인을 이용, 가로 2.4m·세로 2.4m 크기의 가두리 그물 한 칸을 끌어올렸다. 그물 한 칸엔 1~3년생 전복 2000~2500마리가 살고 있다.

그물 안에 폐사한 10cm 크기의 씨알 굵은 전복 빈 껍데기만 수북했다. 이른바 ‘셀타’라 불리는 전복 집엔 전복 한두 마리만 붙어 있었다. 한씨는 지난 3년간 애써 키운 전복 한 마리라도 건져보려고 빈 껍데기 속을 손으로 뒤적거렸지만 살아 꿈틀거리는 전복은 5~6마리에 불과했다.

그나마 상품가치가 있는 전복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올해 추석 출하를 앞둔 이날 현재 전복 가격은 1kg 10마리 기준 3만



껍데기만 수북 5일 완도군 금일읍 도장리 앞바다에 설치된 한병철(43)씨의 전복양식장에서 어민들이 살아있는 전복을 한 마리라도 건지기 위해 가두리 그물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9000원. 이번에 전복양식장 160칸 중 90% 이상의 폐사 피해를 본 한씨는 눈 앞에 사라진 전복 껍데기를 보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임형식(56) 도장이장은 “이 맘 때쯤이면 출하를 앞둔 어민들이 양식장에서 전복 선별작업을 하느라 한창 바빠야 하는데, 보다시피 100ha 달하는 양식장에 어민들

일하는 모습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다.

한씨의 양식장 주변엔 100ha의 양식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어민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텅 빈 전복 집단 양식장 위에 남아 있었다. 한씨는 “추석을 앞두고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라며 “돈을 떠나 지난 3년간 애써 키운 전복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완도군은 이날 기준 금일(348어가)·생일(34어가)·약산(20어가)·신지(4어가) 등 모두 406어가에서 4400만 마리·35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2면으로 계속〉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민생경제 영수회담 열자”

추미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사진)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금의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추 대표는 “야당도 합의의 정치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하다 글로벌 바다에서



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민생경제’의 핵심으로 ‘공정 임금’과 ‘조세개혁’을 꼽으며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추 대표의 이날 제안에 대해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5·10 시대’ 김영란법 국무회의 최종 의결

법절차 마무리 28일부터 시행

정부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22일 앞두고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법적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또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만이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반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3

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래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정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할 때에는 열흘 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과 처리절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립니다



※지령 2만호 2015년 5월 28일자 1면

100년을 향한 光州日報 당신이 주인공

광주일보 제 65기 수습기자 모집

내년이면 창간 65주년을 맞는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담대한 신념,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사실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천착해 역사를 신문에 오롯이 새겨왔습니다. 신문과 모바일이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방법	자격 및 대상
수습기자 ○명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해외여행 결정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재학생은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장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지원서 접수	9월 7일 ~ 20일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월 22일	개별통보
필기시험	9월 25일	국어, 상식, 논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9월 26일	개별통보
면접	9월 28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9월 30일	광주일보 지면 및 개별통보

▶접수처 :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38 광주일보사 경영지원본부
▶필기시험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光州日報社

막으론 조선훈 총장 선거 ▶7면

이제는 문화시민-백남준아트센터 ▶18면

KIA 서동욱 외아수 도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1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1,991cc, 공차중량: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10.8km/ℓ (도심연비:9.6km/ℓ 고속도로연비: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161g/km E 300 4MATIC (배기량:1,991cc, 공차중량: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10.3km/ℓ (도심연비:9.3km/ℓ, 고속도로연비: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